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박현수** · 김준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집단의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종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행친구집단의 특성과 비행 간의 관계는 사회 능력모형과 사회 무능력모형이라는 대립적인 가설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가설이 상대적으로 우세한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변화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친구와의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행과 경비행 친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비행과 중비행 친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집단의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비행의 경우에 사회 능력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비행의 경우에는 사회 무능력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비행의 심각성에 따른 비행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사회 능력/무능력모형, 비행친구집단,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서 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비행친구라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역할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주변의 친한 친구가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친구라면 자신도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주변의 친구가 규범적 특성을 가진 친구라면 자신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하다(Shaw & McKay, 1969; Sutherland & Cressey, 1974; Akers et al, 1979; Matsueda, 1982; 노성호, 1993).

다른 한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친한 친구의 영향에 의해 발생된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이미 자신의 비행이 저질러지고, 그 이후에 비슷한 성향의 비행친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조기사회화기관인 가정이나 학교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Glueck & Glueck, 1950; Hirschi, 1969; Robins, 1974; Jensen, 1972; Gottfredson & Hirschi, 1990).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비행청소년들 간의 연대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조기사회화기관에서의 부적응이라면,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조기사회화기관의 부적응으로 인해 다른 청소년과의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같이 다른 청소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집단의 연대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약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반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같이 다른 청소년과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지만 비행친구와 더 많이 접촉을 하면서 법, 규범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을 선호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집단의 연대도 일반청소년과 유사하게 강한 연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에 관한 논쟁에서 비행청소년들 간의 연대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강하거나 약한 정도만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들 간의 연대가 강할수록 비행친구를 통해 비행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고, 청소년 자신도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반면, 조기사회화기관에서의 부적응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부적응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다른 비행청소년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지만, 비행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에 관한 대립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비행청소년 집단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Hansell과 Wiatroski(1981)는 ‘사회 능력모형(social ability model)’과 ‘사회 무능력모형(social disability model)’로 구분하였다. 능력모형은 비행이 친구와 같이 응집력이 있고 친밀한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행은 개인적 부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학습의 결과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행청소년 집단 내의 다른 청소년들과도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무능력모형은 사회통제이론에서와 같이 비행이 사회통제의 결여로 생겨난 것이고, 이러한 사회통제의 결여는 가정, 학교와 같은 조기사회화기관에서의 부적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사회화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경험을 한 비행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연대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1. 능력모형

사회적 능력모형에서의 연구자들은 비행친구집단이 높은 밀집성이 있고, 감정적 친

밀성과 욕구충족(gratification)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Linden & Hackler, 1973; Giordano et al, 1986; Agnew, 1991). 비행친구집단 간의 연대는 일반청소년들의 연대만큼 강하고 상호지지적이라는 관점으로 차등적 교체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차등적 교체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Sutherland(1970)는 빈도(frequency), 지속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강도(intensity) 등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차등적 교제가 다양화 되고, 이중 강도(intensity)가 범죄적, 비범죄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고, 교제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원천으로서 보고 있다. 또한 비행문화나 비행친구에 빈번하게 오랜 기간 교제하면 할수록 비행문화나 비행친구에 대한 연대의 강도가 강해지므로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김준호, 박미성, 1993).

Hindelang(1973)은 뉴욕주의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친구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친구와의 애착과 비행 간의 관계는 Hirschi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친구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애착과 비행과의 관계는 Hirschi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습적(conventional), 비인습적 친구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inden과 Hackler(1973)는 “친한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항목을 통해 친구에 대한 감정적 연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만일 비행청소년이 비행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다면 일반청소년들보다 비행에 대해 덜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행청소년이 흥미나 인습적인 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특성은 비행친구에 대한 감정적인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iordano와 그의 동료들(1986)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우정의 보상(rewards of friendship)으로 내재적 보상(대화나 신뢰의 공유 등), 외재적 보상(돈, 정보, 물질, 호의 등), 그리고 정체성 지지(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무대를 제공)를 뜻한다. 두 번째 차원은 상호작용의 방식과 영향으로 친구와 지낸 시간, 친구 관계의 기간, 그리고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차원은 우정의 변천(vicissitudes of friendship)으로 친구들 간의 갈등, 친구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또한 비행의 수준에 따

라 청소년을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행 청소년 집단은 동년배에 비해 친구와 갈등이 많지만 다른 청소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gnew의 연구(1991)에서는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친구와의 애착, 친구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친구의 비행성향의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평균정도이거나 낮은 수준에서는 중비행 친구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적인(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수준에서는 중비행 친구가 비행에 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성호의 연구(1993)에서는 친구의 영향력이 조기 범죄화에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후기 문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통제이론에서의 예측과는 반대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많거나, 친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문제화되거나 범죄화되고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비행화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개인이 친구집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태도나 생각을 집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2. 무능력모형

Hirschi(1969)는 비행청소년이 친구들과 친밀한 연대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연대는 일반청소년들의 연대보다 매우 약하다는 입장으로 사회 무능력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김준호, 박미성, 1993). 또한 능력모형에서 주장하는 비행청소년 집단에서의 강한 연대와 친밀함은 ‘낭만적 미신’이라 비판하였다(Hirschi, 1969: 159). 그는 친구를 좋아하는 정도, 친구와의 동일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로 친구와의 애착을 규정하였을 때, 다른 사회통제 기제와 마찬가지로 친구간의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Wiatrowski, Griswold 그리고 Robert(1981)는 비행참여 여부와 “당신의 인생에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비행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Kandel, Kessler, 그리고 Marguiles(1978)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연구하였다. 친구의 약물남용이 약물을 시작하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약물남용이 장기화되면 약물종류에 따라 친구들 간의 연대가 다르게 나타났다. 약한 약물의 남용과 친구들 간의 연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약물과 친구들 간의 연대는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김준호와 박미성의 연구(1993)에서는 친구와 자신의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친구의 필요도는 높은 반면, 친구에 대한 애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신과 친구의 비행여부에 따른 네 가지 유형과 친구의 각 하위차원(친구에 대한 애착도, 친구의 필요도, 비행에 대한 친구압력, 친구와 접촉강도, 그리고 비행에 대한 친구태도)을 연관시켜 보았을 때도, 친구에 대한 애착도는 친구가 비행청소년이라면 애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친구의 필요도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면 필요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집단은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해 친구에 대한 애착은 낮고 필요는 높을 것이라는 무능력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Dishion(1990)은 비행청소년은 또래친구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어 비행청소년 집단에 가담하게 되고, 이 집단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Marcus(1996)는 비행친구 집단의 특징으로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더욱 갈등적이고, 애착이 약하며, 관계개선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고, 사회인지적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아통제이론(1990)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힘든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아통제가 부족한 이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낮은 자아통제는 청소년기에 비행청소년들과의 교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aron, 2003; Wright et al, 1999). 또한 낮은 자아통제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거절을 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비행친구와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Chapple, 2005), 이렇게 비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들 사이에는 감정적 친밀감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abon et al, 1992).

III.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에서 중등패널을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등패널은 2003년에 조사를 시작하여 1년 마다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초등패널은 2004년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등패널과 초등패널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초등패널이 시작한 2004년도를 기점으로 분석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생 대상의 설문지와 초등학생 대상의 설문지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하나의 분석자료로 사용한다면 비표집오차로 인해 일반화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등패널의 조사대상은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다. 표집방법으로는 층화다단계집단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에 의해 서울시·5대 광역시·시군(도)의 지역별주별로 인구비율을 산정하여, 각 지역별주별로 모집단 비율에 맞게 학교수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별된 학교에 1학급을 추출하여 집단면접법을 사용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의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선정된 청소년을 추적하여 개별면접을 하였다(이경상 외, 2004).

2. 변인의 측정

1) 비행¹⁾

비행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²⁾.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비행항목에 '원조교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조교제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가 1차년도 4명, 2차년도 0명, 3차년도 4명, 그리고 4차년도 1명으로 매우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으로

서 사용된 청소년 비행 변인은 각 비행관련 문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비행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비행에 대한 성격을 간과하였다(Raudenbush et al,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각성과 피해자의 유무에 따라 비행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비행은 '지위비행'과 같이 비교적 심각성이 경미하고 비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행위로 정의한다. 중비행은 경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고 비행으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자신의 비행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경비행³⁾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비행으로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솔 경험', '성관계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중비행은 경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비행으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로 '전혀 없음', '1-2번', '3-4번', '5-11번', '12번 이상'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⁴⁾.

2) 비행친구⁵⁾ 및 친구와의 친밀감

비행 변인과 마찬가지로 비행친구 변인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첫

부여된 지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음주와 흡연을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에서부터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준호, 이동원, 1996).

- 3) 경비행의 경우에는 경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 경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경비행에 대한 분석에서 경비행과 중비행을 모두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죄질에 따라 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김준호와 이동원의 연구(1996)에서도 비행을 거트만 척도로 구성한 결과 재생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죄질에 따른 비행의 각 수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 4)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비행관련 변인을 비행 경험의 유무와 비행을 경험한 경우 그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행을 경험한 경우 그 횟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0점으로 대체하였고, 이상점(outlier)을 줄이기 위해 비행을 경험한 경우 그 횟수를 묻는 문항을 5점 척도로 대체하였다.
- 5) 비행친구 변인은 차등적 교제 이론에서와 같이 비행친구의 수보다는 전체 친한 친구들 중 비행친구의 비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친한 친구들 중 각 비행항목을 저지른 친구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번째로 경비행 친구⁶⁾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친구로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친구의 수’, 그리고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무단결석을 한 친구의 수’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중비행 친구는 경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친구로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뺏기기) 친구의 수’, 그리고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친구의 수’로 각 항목마다 비율적으로 구성하였다.

친구와의 친밀감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로 각 항목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 두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 비행친구 변인과 친구와의 친밀감 변인을 모두 표준화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경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을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으로 정의하고, 중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비행 친구와의 친밀감 변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비행과 비행친구, 그리고 친구와의 친밀감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6) 경비행 친구의 경우에도 자신의 경비행의 경우와 같이 중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경비행 친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7)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친구집단의 특성에 대한 문항이 친구들 중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아니라 전체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친구와의 친밀감이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알수 없다. 따라서 비행친구 변인과 친구집단의 특성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체 친한 친구들 중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으면서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다면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은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될 것이고, 이에 비해 전체 친한 친구들 중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지만 친구와의 친밀감이 낮다면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낮은 상호작용 변인이 구성될 것이다.

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비행 청소년집단의 특성에 대한 능력모형과 무능력모형의 가설을 검증한다.

1) 잠재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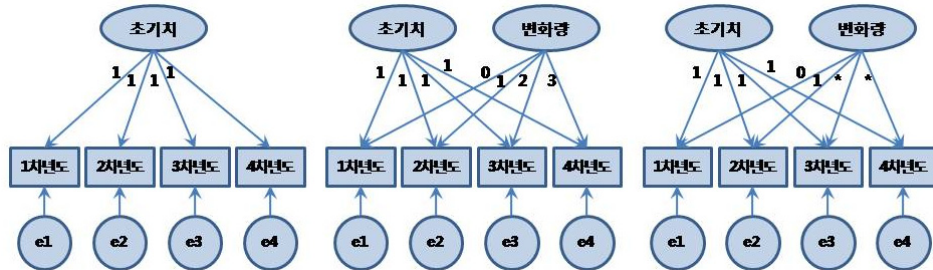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개인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이 가능한 연구방법이다(Duncan et al, 1999). 동일인을 4년 동안의 시간에 따라 반복측정한 변인 Y는 다음과 같은 변화모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Li et al, 2001).

$$\begin{pmatrix} y_1 \\ y_2 \\ y_3 \\ y_4 \end{pmatrix} = \begin{pmatrix} \tau_1 \\ \tau_2 \\ \tau_3 \\ \tau_4 \end{pmatrix} + \begin{pmatrix} 1 & t_1 \\ 1 & t_2 \\ 1 & t_3 \\ 1 & t_4 \end{pmatrix} \begin{pmatrix} \eta_{1i} \\ \eta_{2i} \end{pmatrix} + \begin{pmatrix} \varepsilon_1 \\ \varepsilon_2 \\ \varepsilon_3 \\ \varepsilon_4 \end{pmatrix}$$

$$Y_i = \tau_y + \Lambda_y \eta + \varepsilon_i$$

여기서 τ_1 은 초기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Λ 행렬은 변화의 형태나 시간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η_{1i} 과 η_{2i} 는 각각 개인의 초기 수준인 초기치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slope)의 잠재변인이다. 그리고 ε_i 는 측정오류이다.

변화모형은 Λ 행렬의 계수를 특정값으로 놓음으로써 변화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대립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즉 아래 <그림 1>과 같은 변화모형들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모형 1> 무변화모형

<모형 2> 선형 변화모형

<모형 3> 자유모수 변화모형

[그림 1] 변화모형의 유형

무변화모형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모두 0으로 놓음으로써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선형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3으로 고정하여 4년 동안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1차년도의 요인계수를 0으로, 그리고 2차년도는 1로 고정하였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요인계수는 미리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모형을 통해 각 잠재모형별로 최적모형을 규명하여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2)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상호작용

잠재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Jöreskog와 Yang(1996)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Jöreskog와 Yang은 F_x 에 2개(X_1, X_2), F_z 에 2개(Z_1, Z_2)의 지표에서 산출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지표($X_1Z_1, X_1Z_2, X_2Z_1, X_2Z_2$)를 이용하지 않고 X_1Z_1, X_2Z_2 와 같은 준거지표만을 사용해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배병렬, 2005).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생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아래와 같은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begin{bmatrix} x_1 \\ x_2 \\ x_3 \\ x_4 \\ x_5 \\ x_6 \\ x_7 \\ x_8 \\ x_9 \\ x_{10} \\ x_{11} \\ x_{12} \\ x_2x_6 \\ x_3x_7 \\ x_4x_8 \\ x_2x_{10} \\ x_3x_{11} \\ x_{14}x_{12} \end{bmatrix} = \begin{bmatrix} \tau_1 \\ \tau_2 \\ \tau_3 \\ \tau_4 \\ \tau_5 \\ \tau_6 \\ \tau_7 \\ \tau_8 \\ \tau_9 \\ \tau_{10} \\ \tau_{11} \\ \tau_{12} \\ \tau_2\tau_6 \\ \tau_3\tau_7 \\ \tau_4\tau_8 \\ \tau_2\tau_{10} \\ \tau_3\tau_{11} \\ \tau_4\tau_{12} \end{bmatrix}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32}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42}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74}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84}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11,6} & 0 & 0 \\ 0 & 0 & 0 & 0 & 1 & \lambda_{12,6} & 0 & 0 \\ 0 & \tau_6 & 0 & \tau_2 & 0 & 0 & 1 & 0 \\ 0 & \tau_7\lambda_{32} & 0 & \tau_7\lambda_{32} & 0 & 0 & \lambda_{32}\lambda_{74} & 0 \\ 0 & \tau_8\lambda_{42} & 0 & \tau_7\lambda_{32} & 0 & 0 & \lambda_{42}\lambda_{84} & 0 \\ 0 & \tau_{10} & 0 & 0 & 0 & \tau_2 & 0 & 1 \\ 0 & \tau_{11}\lambda_{32} & 0 & 0 & 0 & \tau_3\lambda_{11,6} & 0 & \lambda_{32}\lambda_{11,6} \\ 0 & \tau_{12}\lambda_{42} & 0 & 0 & 0 & \tau_4\lambda_{12,6} & 0 & \lambda_{42}\lambda_{12,6} \end{bmatrix} \begin{bmatrix} \xi_1 \\ \xi_2 \\ \xi_3 \\ \xi_4 \\ \xi_5 \\ \xi_6 \\ \xi_2\xi_4 \\ \xi_2\xi_6 \end{bmatrix} + \begin{bmatrix} \delta_1 \\ \delta_2 \\ \delta_3 \\ \delta_4 \\ \delta_5 \\ \delta_6 \\ \delta_7 \\ \delta_8 \\ \delta_9 \\ \delta_{10} \\ \delta_{11} \\ \delta_{12} \\ \delta_{13} \\ \delta_{14} \\ \delta_{15} \\ \delta_{16} \\ \delta_{17} \\ \delta_{18} \end{bmatrix}$$

$$X = \tau_x + \Lambda_x \xi + \delta$$

위의 행렬에서 잠재변인 $\xi_2\xi_4$, $\xi_2\xi_6$ 은 측정된 교차곱 변인들(cross-product variables)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차곱 변인들의 행렬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x_2x_6 &= x_{13} = \tau_2\tau_6 + \tau_6\xi_2 + \tau_2\xi_4 + \xi_2\xi_4 + \delta_{13} \\
 x_3x_7 &= x_{14} = \tau_3\tau_7 + \tau_7\lambda_{32}\xi_2 + \tau_3\lambda_{74}\xi_4 + \lambda_{32}\lambda_{74}\xi_2\xi_4 + \delta_{14} \\
 x_4x_8 &= x_{15} = \tau_4\tau_8 + \tau_8\lambda_{42}\xi_2 + \tau_4\lambda_{84}\xi_4 + \lambda_{42}\lambda_{84}\xi_2\xi_4 + \delta_{15} \\
 x_2x_{10} &= x_{16} = \tau_2\tau_{10} + \tau_{10}\xi_2 + \tau_2\xi_6 + \xi_2\xi_6 + \delta_{16} \\
 x_3x_{11} &= x_{17} = \tau_3\tau_{11} + \tau_{11}\lambda_{32}\xi_2 + \tau_3\lambda_{11,6}\xi_6 + \lambda_{32}\lambda_{11,6}\xi_2\xi_6 + \delta_{17} \\
 x_4x_{12} &= x_{18} = \tau_4\tau_{12} + \tau_8\lambda_{42}\xi_2 + \tau_4\lambda_{12,6}\xi_6 + \lambda_{42}\lambda_{12,6}\xi_2\xi_6 + \delta_{18}
 \end{aligned}$$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성한 외생변인들과 내생변인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행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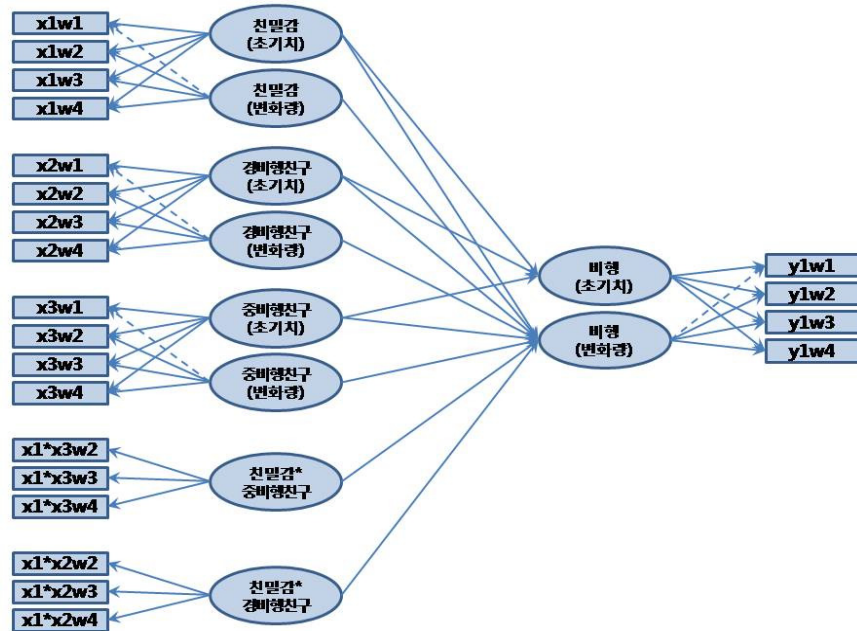
$$\begin{pmatrix} \eta_1 \\ \eta_2 \end{pmatrix} = \begin{pmatrix} \alpha_1 \\ \alpha_2 \end{pmatrix} + \begin{pmatrix} \gamma_{11} & 0 & \gamma_{13} & 0 & \gamma_{15} & 0 & 0 & 0 \\ \gamma_{21} & \gamma_{22} & \gamma_{23} & \gamma_{24} & \gamma_{25} & \gamma_{26} & \gamma_{27} & \gamma_{28} \end{pmatrix} \begin{pmatrix} \xi_1 \\ \xi_2 \\ \xi_3 \\ \xi_4 \\ \xi_5 \\ \xi_6 \\ \xi_2\xi_4 \\ \xi_2\xi_6 \end{pmatrix} + \begin{pmatrix} \zeta_1 \\ \zeta_2 \end{pmatrix}$$

$$\eta = \alpha + B\eta + \Gamma\xi + \zeta$$

여기서 B는 영행렬(null matrix)이다. γ 값 중 0으로 고정시킨 이유는 η_1 이 내생변인의 초기치, η_2 는 내생변인의 변화량이라 가정하고, ξ_1 , ξ_3 , 그리고 ξ_5 는 외생변인의 초기치, ξ_2 , ξ_4 , 그리고 ξ_6 은 외생변인의 변화량이라 가정했을 때, 내생변인의 초기치에 외생변인의 초기치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생변인의 초기치에 외생변인의 변화량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과관계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1차년도 이후의 외생변인 변화량이 내생변인의 1차년도 초기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의 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능력모형에서는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같이 다른 청소년과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지만 비행친구와 더 많이 접촉을 하면서 법, 규범에 대한 비우호적 가치를 선호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집단의 연대도 일반청소년과 유사하게 강한 연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무능력모형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조기사회화기관의 부적응으로 인해 다른 청소년과의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비행청소년 집단의 연대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약하다는 입장이다.



[그림 2] 분석 모형

이러한 대립되는 가설을 정리하면, 능력모형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비행을 더욱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능력모형에서는 비행친구들 간의 친밀함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약하고, 이러한 성향이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이 각각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특히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을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으로 정의하여,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 능력모형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 무능력모형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이 종속변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종속변인인 경비행은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비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인 중 친구와의 친밀감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4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 친구는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비행 친구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차년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인	경비행	0.392	1.099	0.574	1.389	0.970	1.992	1.295	2.292
	중비행	0.837	1.902	0.401	1.527	0.219	1.045	0.190	0.963
독립 변인	친구와의 친밀감	16.230	2.591	16.671	2.654	16.990	2.521	16.953	2.493
	경비행 친구	0.111	0.303	0.152	0.402	0.324	0.568	0.395	0.617
	중비행 친구	0.100	0.314	0.090	0.337	0.048	0.221	0.052	0.267

2. 각 변인별 변화형태

1차년도에서 4차년도 동안의 각 변인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1>에서와 같이 3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모형1은 초기치만 있고, 변화율은 없는 모형으로 4년 동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2는 초기치와 변화율을 가지며 변화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모형3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해보면, 우선 χ^2 값은 모형2가 모형1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GFI, NFI, CFI값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비행 친구의 경우에는 모형1에 비해 모형2의 경우에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RMR과 RMSEA값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전반적인 모형적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모 형		$\chi^2(df)$	GFI	NFI	CFI	RMR	RMSEA
모형1	친구와의 친밀감	293.69 (8)	0.986	0.826	0.830	0.273	0.115
	경비행	1195.16 (8)	0.864	0.147	0.149	0.682	0.239
	경비행 친구	1043.47 (8)	0.914	-0.467	0.000	0.042	0.227
	중비행	476.08 (8)	0.970	0.539	0.544	0.188	0.146
	중비행 친구	212.51 (8)	0.976	0.643	0.653	0.006	0.098
모형2	친구와의 친밀감	48.57 (5)	0.999	0.971	0.974	0.056	0.056
	경비행	58.23 (5)	0.993	0.958	0.962	0.126	0.061
	경비행 친구	83.35 (5)	0.996	0.883	0.889	0.008	0.075
	중비행	142.01 (5)	0.991	0.863	0.867	0.075	0.099
	중비행 친구	107.72 (5)	0.984	0.819	0.826	0.005	0.087
모형3	친구와의 친밀감	5.42 (3)	0.999	0.997	0.999	0.085	0.017
	경비행	12.22 (3)	0.998	0.991	0.993	0.053	0.032
	경비행 친구	13.34 (3)	0.998	0.981	0.985	0.004	0.035
	중비행	33.80 (3)	0.994	0.967	0.970	0.042	0.060
	중비행 친구	17.54 (3)	0.997	0.971	0.975	0.002	0.041

모형2와 모형3의 χ^2 값을 비교해보면, 모든 변인들에서 자유도의 감소에 비해 χ^2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모형2에 비해 모형3이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GFI, NFI, CIF, RMR, RMSEA값은 그리 크게 향상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형3이 제시한 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모형3의 자유모수 변화모형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우선 친구와의 친밀감의 경우에는 초기치가 16.2318이고, 변량이 3.7383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와의 친밀감의 초기치가 청소년들 간에 많은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년간 변화율 평균은 0.434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친구와의 친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은 0.7782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친구와의 친밀감의 변화율이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잠재성장모형별 추정치

		평 균	변 량
친구와의 친밀감	초기치(Intercept)	16,2318 ***	3,7383 ***
	변화율(Slope)	0,4346 ***	0,7782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6022 ***	
경비행	초기치(Intercept)	0,3860 ***	0,3655 ***
	변화율(Slope)	0,1950 ***	0,1254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0440	
경비행 친구	초기치(Intercept)	0,1033 ***	0,0207 ***
	변화율(Slope)	0,0474 ***	0,0033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0006	
중비행	초기치(Intercept)	0,8340 ***	1,8512 ***
	변화율(Slope)	-0,4230 ***	0,6684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8959 ***	
중비행 친구	초기치(Intercept)	0,1016 ***	0,0387 ***
	변화율(Slope)	-0,0159 *	0,0030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7983	

* p < .05, ** p < .01, *** p < .001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6022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친구와의 친밀감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이후 변화율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초기치가 낮을수록 이후 변화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의 초기치 평균은 0.3860 이고, 변량은 0.3655 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차년도 경비행은 청소년들 간에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 평균은 0.1950 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 이후 경비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0.1254)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비행의 변화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정적 관계(0.0440)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비행의 초기치에 상관없이 경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경비행 친구의 경우에는 초기치 평균이 0.1033 이고, 변량이 0.0207 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0474 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 이후에 경비행 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의 변량(0.0033)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 친구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정적 관계(0.0006)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비행 친구의 초기치에 따라 이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의 초기치 평균은 0.8340 이고, 변량은 1.8512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차년도에 중비행은 청소년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4230 으로 1차년도 이후의 중비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변화율의 변량은 0.6684 로 청소년들 간의 개인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비행의 초기치와 변화량의 상관관계는 부적 관계(-0.8959)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차년도 중비행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이후 중비행의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1차년도에 중비행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이후 중비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 평균은 0.1016 이고, 변량이 0.0387 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

의 변화율 평균은 -0.0159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 이후에 중비행 친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 변량은 0.003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 간의 개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0.7983)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1차년도 중비행 친구에 상관없이 이후에 중비행 친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경비행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비행 친구, 중비행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 친구의 초기치와 경비행의 초기치와의 관계는 정적 관계(1.271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는 경비행의 초기치에 대해서 정적 관계(.2946)로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년도 비행 친구와 비행의 관계는 경비행 친구와 중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경비행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경비행 친구의 변화율은 경비행 변화율에 대해 정적 관계(1.20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비행 친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경비행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은 경비행 변화율과 정적 관계(.477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과 경비행의 변화율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의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비행 친구 변화율의 평균이 음의 값으로 중비행 친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비행 친구가 빠르게 감소할수록 경비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 간의 상호작용은 경비행 변화율과 정적 관계(.1073)로 나타나고 있어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 클수록 경비행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경비행 초기치	경비행 변화율
친구와의 친밀감	초기치	-.0281	.0207
	변화율		.0715
경비행 친구	초기치	1.2711 ***	-.1253
	변화율		1.2097 ***
중비행 친구	초기치	.2946 ***	-.0251
	변화율		.4778 ***
경비행 친구*친구와의 친밀감			.1073 *
중비행 친구*친구와의 친밀감			-.0132

$\chi^2 = 1709.5581$ (P = 0.0), D.F = 195

RMR = 0.04479, RMSEA = 0.05295, GFI = 0.9474, NFI = 0.7825,

CFI = 0.8015

* p < .05, ** p < .01, *** p < .001

중비행 친구의 초기값은 경비행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비행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에 중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경비행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중비행 친구의 변화가 경비행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변화율이 경비행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경비행 친구가 많아질수록, 중비행 친구가 줄어들수록, 그리고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경비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비행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는 경비행 친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은 경비행 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행의 변화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 경비행 친구집단이 능력모형에서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체 친구와의 친밀감은 경비행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도 경비행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을 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친구와의 친밀감과 중비행 친구와의 친밀감보다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 경비행의 변화

에 더욱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중비행 초기 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경비행 친구와 중비행 친구로 나타나고 있다. 경비행 친구는 중비행 초기치에 대해서 정적 관계(.1317)로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에 경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1차년도 중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와 중비행의 초기치와의 관계도 정적 관계(.9781)로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에 경비행 친구나 중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비행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비행 친구의 변화율은 정적 관계(.4296)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비행 변화율의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비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행 친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수록 중비행의 감소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비행 친구의 초기값은 중비행 변화율과 정적 관계(.25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에 중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이후 중비행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은 중비행 변화율과 정적 관계(1.48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비행 친구의 감소속도가 빨라질수록 중비행도 빠르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은 정적 관계(.1214)로 나타나고 있어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중비행의 감소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비행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경비행 친구가 많아질수록, 1차년도 중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중비행 친구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중비행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는 중비행 친구로 할 수 있다.

<표 5>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중비행 초기치	중비행 변화율
친구와의 친밀감	초기치	.0082	.0605
	변화율		.0912
경비행 친구	초기치	.1317 **	-.0637
	변화율		.4296 ***
중비행 친구	초기치	.9781 ***	.2525 *
	변화율		1.4850 ***
경비행 친구*친구와의 친밀감			.0488
중비행 친구*친구와의 친밀감			.1214 *

$\chi^2 = 1519.5122$ (P = 0.0), D.F = 195
 RMR = 0.04327, RMSEA = 0.04981, GFI = 0.9524, NFI = 0.7857,
 CFI = 0.8069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친구와의 친밀감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경비행에서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은 중비행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비행에서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중비행의 감소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비행 친구와의 연대가 중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행친구들 간의 연대는 약할 것이라는 무능력모형의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각 변인들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친구와의 친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비행과 경비행 친구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비행과 중비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비행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비행의 초기치에는 경비행 친구와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가 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행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경비행 친구의 변화율,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 그리고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경비행 친구의 변화율이 경비행의 변화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집단의 특성인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은 경비행 친구나 중비행 친구가 경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경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을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라고 정의한다면 경비행의 경우에 다른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경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행 친구집단의 경우에는 능력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친구와의 친밀감과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은 경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의 초기치에는 경비행 친구와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가 모두 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비행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비행 친구의 변화율, 중비행 친구의 초기치,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 그리고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요인들은 모두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비행의 변화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는 중비행 친구의 변화율이다. 즉 중비행 친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중비행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행 친구와의

친밀감과 관련해서는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와 친구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을 중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라 정의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경비행 친구와의 친밀감과 경비행의 관계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비행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중비행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비행 친구집단의 경우에는 무능력모형이 더욱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경비행의 경우에는 능력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비행친구들 간에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행친구집단 내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에 대한 가치, 규범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비행친구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비행의 경우에는 무능력모형이 지지되고 있어서 중비행친구들 간에 강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비행친구집단 내에서는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비행친구가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경비행으로 구성된 변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변량을 흡연과 음주와 같은 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흡연과 음주, 특히 음주와 같은 비행은 대부분 친구와 함께 저지르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유형의 비행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비행의 경우에도 비행친구와의 친밀감이 전혀 필요없거나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비행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 비행유형에 따른 비행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행친구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행친구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경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비행 친구와의 연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

행친구와의 관계 단절과 함께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기사회화 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비행 친구와의 연대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사회화 기관에서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준호, 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1993).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2006).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청람.
-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II: 조사 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kers, Ronald L., Marvin D. Krohn, Lonn Lanze-Kaduce, and Marcia Radosevich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General Test of a Specific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No. 4, pp. 635-655.
- Agnew, Robert.(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9 No. 1, pp. 47-72.
- Baron, S. W.(2003). Self-Control, Social S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0 pp. 403-425.
- Chapple, Constance 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 22 No. 1, pp. 89-106.
- Cohen, Albert K.(1955).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The Free Press.
- Dishion, Thomas J.(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Vol. 61 No. 3, pp. 874-892.
- Duncan, Terry E., Susan C. Duncan, Lisa A. Strycker, Fuzhong Li, and Anthony Alpert(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iordano, Peggy C., Stephen A. Cernkovich, and M. D. Pugh(1986). Friendships and Delinquenc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No. 5, pp. 1170-1202.

- Glueck, Sheldon., and Eleanor Glueck(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Marva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sell, S., and M. D. Wiatrowski(1981). Competing Conceptions of Delinquent Peer Relation. *Sociology of Delinquency: Current Issues*. G. F. Jensen(ed.). CA: Sage.
- Hindelang, Michael J.(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tion. *Social Problems*, Vol. 20 No. 4, pp. 471-487.
-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 Free Press.
- Jensen, Gary F(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3, pp. 562-575.
- Jöreskog, K. G., and Yang, F.(1996) Non-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Kenny-Judd Model with Interaction Effect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 Marcoulides and R. Schumacker(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ndel, Denise B., Ronald C. Kessler, and Rebecca Z. Margulies(1978). Antecedents of Adolescent Initiation into Stages of Drug Us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No. 1, pp. 13-40.
- Li, Fuzhong., Terry E. Duncan, Susan C. Duncan, Fan Yang-Wallentin, Alan C. Acock, and Hyman Hops(2001). Interaction Models in Latent Growth Curve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 Marcoulides and Randall E. Schumacker(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nden, Eric and James C. Hackler(1973).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 16 No. 1, pp. 27-46.
- Marcus, Robert F.(1996). The Friendships of Delinquents. *Adolescence*, Vol. 31 No. 121.
- Matsueda, Ross L(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No. 4, pp. 489-504.
- Pabon, Edward., Orlando Rodriguez, and Gerald Gurin(1992). Clarifying Peer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Vol. 14, pp. 149-165.
- Raudenbush, S. W., Johnson, C., and Sampson, R. J(2003). A Multivariate, Multilevel Rasch Model with Application to Self-reported Criminal Behavior.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33 No. 1, pp. 169-211.
- Robins, Lee N(1974). *Deviant Children Grown Up: A Sociological and Psychiatric Study of Sociopathic Personality*, Huntington, N.Y.: R.E. Krieger.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1974). *Criminology*, Lippincott.
- Wiatroski, Michael D., D.B. Griswold, and Mary K. Roberta(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46 No. 5, pp. 525-541.
- Wright, B. R. E.,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Vol. 37 pp. 479-514.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t Peer Groups and Their Effect upon Delinquency :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cy with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Park, Hyun-Soo* · Kim, Joon-Ho*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haracteristic of juvenile delinquent groups affects juvenile delinquency by means of a longitudinal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 of juvenile delinquent group and delinquency can be divided into two opposite tentative theories; namely, the social ability model and the social disability model. Based on these two tentative theories, this study verified which theory is relatively superior in explaining juvenile delinquency. In addition, a latent growth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changes over time and each factors thereof.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YPS data from the NYP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hanges in each factor over time indicate that the intimacy with friends increased consistently over the passage of time. In addition, mildly delinquent friends also increased consistently, however, seriously delinquent friends and seriously delinquent behaviour decreased.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nquent friends group upon juvenile delinquency, in the case of mild delinquency, supports the social mobility model, and in the case of serious delinquency, the social disability model is supported. Therefore, the results

* Korea University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eventive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eriousness of the delinquency in question.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Social ability/disability model, juvenile delinquent group, Latent growth model(LGM)

투고일 : 12월 16일, 심사일 : 2월 12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